



겨울날 푸르른 남산의 토종 나무들

온 세상이 하얗게 변해도, 푸르름이 한창일 때도, 잎들이 울긋불긋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어도...이렇듯 계절이 바뀌어도 이파리 색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인 나무들이 있습니다. 바로 상록수 입니다. 남산공원에도 대략 36종의 상록수들이 있습니다. 이 중 옛날부터 남산에 터를 잡고 사는 상록수는 소나무와 노간주나무입니다.



나무 아래에서 바라본 소나무

🌲 100세가 넘는 소나무, 낙락장송!

소나무와 노간주나무를 제외한 침엽수들(화백, 편백, 전나무, 측백나무 등)은 모두 식재한 나무입니다. 물론 소나무도 대부분 전국 각지에서 옮겨 와 심었지만, 오랜 시간 동안 남산의 상징으로 살아온 것은 확실합니다. 특히 암반 급경사 지역에서 사는 나무들은 보기에 작지만, 나이는 꽤 많을 것입니다. 석호정(국궁장) 일대를 비롯한 몇 군데는 100년 넘는 소나무도 있습니다.



소나무힐링숲 설경



급경사지 암반에 사는 소나무



식재 된 소나무

☁️ 작지만 강한 나무, 노간주나무!

남산 숲속에는 상록침엽수인 노간주나무(*Juniperus rigida*)도 살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침엽수 중 소나무 다음으로 많다는데, 얼핏 소나무나 향나무와 비슷해 보여 모르고 지나치기 십상입니다. 생장 속도가 느린 편이어서 가슴높이(胸高)에서의 지름이 10cm로 작지만 50년 이상 살아 온 나무도 있습니다. 평균 2~3m로 키는 크지 않지만, 나이는 많습니다.



노간주나무 잎



노간주나무 열매



노간주나무 전체 모습